

서울시 중년기 주부의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 연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Memorial Rites

By Middle-aged Housewives in Seoul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대학원

석사구속회**

겸임교수 최배영***

Dept. of Cultural Industry,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

Master Suk-Hoe Gu

Plural Professor Bae-Young Choi

〈목 차〉

I. 서론	IV. 결과 및 해석
II. 이론적 배경	V. 요약 및 결론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esirable model of memorial rites on the basis of their essential significance, as recognized by middle-aged housewives. This study was based on an interview survey that was conducted with 40 housewives in their 40's and 50's who live in Seoul. The interviews were carried out from August 1, 2009 to October 20, 2009, using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iddle-aged housewives recognized the significance of memorial rites as an expression of their sincerity, or as a cultural demonstration of affection commemorating their ancestors.

Secondly, the housewives mentioned possible changes to different memorial rites depending on the will of their children's generation. These included a grafting of different memorial rites between religions, or a shift of the memorial rites to a religious

* 본 연구는 석사학위논문 일부 수정, 보완하여 2010년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로 발표한 것을 확장한 것임.

** 주저자: 구속회 (kusookhe@hanmail.net)

*** 교신저자: 최배영 (kb9112@hanmail.net)

institution or a memorial facility, in addition to maintaining the current practice in one's home.

Thirdly, we proposed memorial rites that are carried out in one's home (Confucian, Christian, Confucian plus Catholic, or Confucian plus Buddhist style), a religious institution (Catholic church or Buddhist temple), and a memorial facility (arboretum, graveyard or enshrine facility).

Key Words : 중년기 주부(middle-aged housewives), 추모의례(memorial rite), 추모시설(memorial facility), 종교기관(religious institutions)

I. 서론

추모(追慕)는 돌아가신 이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마음에 새긴다는 뜻이다. 추모의 의미에 대해 최우영(2003)은 고인을 애뜻하게 기리는 행위나 모습으로 정의하였으며, 박병구(2003)는 후손들이 모여 돌아가신 부모 혹은 조상을 기리며 그분의 삶을 회고하고, 올바른 삶을 다짐하는 기회로 삼는 의례로 언급하였다. 이로 보면 추모의례는 매년 기일을 맞이하여 돌아가신 분을 향한 추모를 이행하는 의례로 정의된다고 하겠다.

오늘날 도시적 생활양식의 보편화, 양성평등사상의 고조, 여성들의 고학력 추세, 가치관의 변화,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의 공존 등 시대와 사회 환경의 변화로 가정 내 의례문화에도 많은 변모가 일어나고 있다. 추모의례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과거의 유교적 제례 양식인 기제가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불교식의 천도재, 천주교식의 연미사, 기독교식의 추도에 배 등과 같이 각 가정의 종교에 따른 의식 하에 추모의례를 행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교식 기제를 중심으로 한 제례(祭禮)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유교식, 불교식, 천주교식, 기독교식 등 각 종교별로 고인을 기리고 생각하는 의례는 추모의례(追慕儀禮)로 통칭될

수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의 추모의례 관련 선행논문들을 살펴보면 문화인류학 혹은 민속학, 종교학, 가정학과 같은 학문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이들 가운데 문화인류학 혹은 민속학적 접근(문옥표, 1998, 2007; 김미영, 2009; 김시덕, 2009; Martina Deuchler, 2009)에서는 가정의례 혹은 일생의례로서의 제례의 양상을 논의하거나 제례에 투영된 세계관을 연구해왔으며, 종교학적 접근(권태환, 1999; 김영수, 2002; 박병구, 2003; 이복규, 2005, 2009; 김은정, 2006; 이승원, 2006; 정각, 2007; 구미래, 2009; 박일영, 2009)에서는 한국의 전통제례와 각 종교별 의식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는 연구가 주가 되어왔다. 가정학적 접근(임옥행, 1981; 이길표, 1982; 박순천, 1986; 박수정, 1989; 한재숙·허성미·김정숙, 1989; 김인옥, 1990, 1997; 이정우·김명나, 1990, 1993; 김시월, 1997; 이정우·김연화, 1999; 김기경·박혜인, 2001; 박혜인·조은숙, 2001; 안숙자·박경란, 2001; 정복미·정해옥·김은실, 2004; 김계숙, 2008)에서는 유교식 제례 행례를 토대로 관련된 의식 및 행동의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전통적인 기제와 연시제·절사를 검토하여 현대식 제례를 재구성하는 모델을 제안한 연구(두경자, 2000, 2001)도 일부 이루어져왔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이 유교식의 기제 행례에 초점을 두어 그에 대한 인식내지는 수행의 측면을 다루어왔다는 점으로 집약된다.

이에 반해 오늘날 각 가정의 종교적 특성이 반영된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노부모 세대가 이행해온 추모의례에 참여하거나 스스로 주관자가 되어온 중년의 세대이자 앞으로 자신의 자녀가 이행하길 바라는 추모의례의 모습에 기대를 갖는 어머니세대로서 중년기 주부들의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다음 세대가 영위하게 될 추모의례의 양상을 예견하고, 그를 토대로 지향해나가야 할 추모의례의 모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을 지닌다. 이는 현재는 물론 미래에 영위하게 될 종교별 추모의례의 변모 양상을 이해하는 일환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대사회의 생활이나 정서에 부합하는 실천 가능한 추모의례의 대안 모색과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한 추모의례 교육의 방향 설정에도 일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기 주부들이 갖고 있는 현행의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과 향후 자녀세대에게 기대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를 파악함으로써 시대변화에 따른 추모의례문화의 본질적 의의에 대한 재정립을 토대로 현 사회에 적합한 추모의례 모델을 제시하는데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종교별 추모의례

1) 유교식

유교식 추모의례인 기제에 관련하여 조선시대 이재(1680~1746)의 『사례편람』을 보완한 『증보사례편람』의 내용을 살펴보면 신주를 받들어 정침으로 모시기를 청하는 고사식(告辭式)에 추

모(追慕)라는 표현이 나온다.

‘이제 현○○친속 ○○며솔 부군이 영원히 돌아가신 때를 맞아 감히 신주께서 정침으로 나아가실 것을 청하기를 공손하게 추모하는 뜻으로 껍니다(今以 顯某親某官府君 遠諱之辰 敢請神主 出就正寢 恭伸追慕).’

이를 보면 기일에 사당으로부터 신주를 모셔 내오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임하는 자손들은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으로 기제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제의 본질은 보본반시(報本反始)에 있으며, 이는 부모의 생전에 봉양(奉養)을 다하지 못했음을 뉘우치며 효를 사후에 까지 영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효는 기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홍현주, 1986; 박수정, 1989; 이정우·김명나, 1990; 김인옥, 1997)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제사행례의 목적이 효에 있다고 하는 결과는 그 중요성을 확인시켜 준다.

기제의 절차를 『증보사례편람』을 토대로 살펴보면 축문에 제시되는 휘일부림(諱日復臨)이라는 문구에서처럼 조상이 돌아가신 날 첫 새벽에 참석자들이 제복으로 갈아입고 사당에서 신주를 내어 정침으로 나아가면서 시작된다. 이에 대해 윤원철(1990)은 일상의 소란으로부터 격리된 또는 아직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시간인 자정(子正)이나 첫 새벽에 제례가 행해지는 것임을 언급하였다. 즉 기일은 일상생활과 다른 특별한 시간에 제사를 행함으로써 인간의 일상사와 차이를 두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련의 절차 가운데 참신(參神)은 사당에서 신주를 모시고 정침으로 와서 제주(祭主)이하 모든 참석자들이 신주를 향해 재배하는 것이다. 강신(降神)은 조상신을 내려 모시는 예로 분향하고 술을 따라 모사(茅沙)에 부어 신이 땅(모사)에 내려 왔음을 상징한다. 초헌(初獻)

은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예이며, 독축(讀祝)은 조상신에게 추모의 마음을 아뢰고 준비한 음식을 흠향하시라는 내용의 서식을 낭독하는 것이다. 아헌(亞獻)은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예이며, 종헌(終獻)은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것이다. 유식(侑食)은 조상신에게 음식 드시기를 권하는 예로 제주가 첨작(添酌)을 한 후 밥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놓는다. 합문(闔門)은 조상신이 음식을 드시는 동안 모든 참석자들이 문밖으로 물러나 기다리는 절차이고, 계문(啓門)은 조상신의 식사가 끝날 무렵 다시 들어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려놓은 후 국을 물리고 송냥을 올리는 것이다. 사신(辭神)은 조상신에게 모두가 고별인사를 드리는 것이며, 납주(納主)는 사당으로 신주를 다시 모셔가는 예이다. 끝으로 첩(撤)은 진설했던 제사상을 치우는 절차이다. 이와 같이 유교식 기제의 절차는 조상신을 모셔 와서 추모의 뜻을 전하고 음식을 대접한 후 다시 사당으로 모셔가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2) 불교식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불교적 일생의례의 특성을 연구한 구미래(2009)에 의하면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불교는 민간의 삶과 깊은 유대를 맺고 있어 불교의 사상과 예제(禮制)가 생애의 각 단계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사후에도 고인의 영혼은 사찰에 안치되어 재(齋)를 지냈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와서 의례를 비롯한 모든 생활규범이 유교적 질서 속으로 재편되었고, 특히 1398년(태조 7년) 예조의 건의로 불교식 재를 폐지함으로써 민간의 의례공간은 사찰에서 가정으로 점차 바뀌었다. 이후 민간의 일생의례는 유교적 규범 속에서 생활화되었고, 불교식 일생의례는 관례화된 유교식의 상·제례에 더하여 치르는 천도재(遷度齋)를 중심으로 전승되었다.

불교의 생사관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49일 간의 증유(中有)를 지나 생을 마감하고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된다. 이러한 윤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매년 고인에 대한 의례를 행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영혼을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한 천도의 의미이다. 즉 고인을 위한 의례는 천도를 거듭함으로써 업을 희석시킬 수 있고, 이후에 거듭되는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는 마음은 규범적 지침 이전의 문제로 간주되는 것이다.

사찰에서의 불교식 천도재의 절차는 사회를 맡은 법사(法師)의 개식 선언으로 시작되고, 다음으로 삼귀의례(三歸依禮)로 불(佛)·법(法)·승(僧)의 삼보(三寶)에 돌아가도록 하는 예를 배운다. 법회(法會)를 주재하는 법주(法主)가 반야심경(般若心經)을 봉독한 후 참석자 모두가 묵도(默禱)를 한다. 고인의 약력보고와 함께 추도문을 읽고 나서 법주가 고인의 추도와 유족의 위안을 겸하여 추도사를 읽는다. 참석자들 중 대표가 나와서 유족과 친지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감상(感想)을 행한다. 유족이 먼저 분향하고 다음에 참석자들이 분향을 행한다. 감상의 답례로 유족 대표가 나와서 답사를 한다. 법사가 폐식을 선언하고 마친다(김상혁, 1996; 안혜숙·주영애·김인옥, 2002; 임종웅, 2007).

한편 도시주부의 제례 행례를 조사한 이정우와 김명나(1990)의 연구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제례를 검토한 두경자(2000)의 연구를 살펴보면 종교가 불교인 조사대상자들의 경우 가정에서 제례를 행할 때 타종교에 비해 유교식 기제의 전통이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위패를 사용해 모신 조상신에게 술을 대신해 차와 준비한 제수를 올리고, 예를 마치면 하직인사를 하는 등 유교식 기제와 그 골격이 유사하다. 이는 역사적으로 불교식 제례가 유교식 제례와 밀착되어온 일면을 입증한다. 불교방송

(2011)에 의하면 최근에는 술 대신 차를 올리는 불교식 가정 제사를 일반에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와 공청회가 이루어지고도 있다.

3) 천주교식

천주교의 경우 고인을 기억하여 지내는 추모의례는 조상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는 제사가 아니라 연(煉)미사나 연도(煉禱)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용어들이 암시하는 바대로 고인은 마지막 부활의 날까지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있으면서 살아남은 이들의 도움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존재로 상정된다. 이로 인해 천주교에서는 고인을 위해 평생 동안 연도를 행할 것을 권고한다.

박일영(2009)에 의하면 천주교는 조선시대 왕실이나 국가기구를 통해 전파된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전교되었던 만큼 일차적으로 유교식 기제를 거부하였고, 이는 당시 박해를 받게 된 주원인이 되어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인 미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제례문화의 토착화에 관건이 되었다.

성당에서 행하는 연미사의 절차를 살펴보면 이는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본받아서 진행하는 성제(聖祭)의 성격이다. 기일이 돌아오면 온 가족이 성당에서 연미사를 올리는데 이때 가족뿐 아니라 가까운 일가친척 및 교우들에게도 연락하여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사제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간소한 음식을 대접하기도 한다(김상혁, 1996; 임중웅, 2007).

한편 가정에서 행해지는 추모의례에 관련하여 한국 천주교 신자의 과반수가 유교식 기제를 지내는 이유를 밝힌 김영수(2002)는 기제가 개인적 혹은 가족적 행사이기에 의례의 영향 범위가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이에 무리한 방식으로 이름뿐인 제사의 형식을 새로 제정하기 위해 애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유교식 기제 형식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거기에 천주교 고유의 세계관에 따라 의미를 재해석하는 방식의 접근이 요구되어 온 것이다(허윤석, 2002: 14-15). 이러한 종교관으로 천주교에서는 기일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음식을 차리고 나누는 예식을 진행하는 것은 고인을 향한 정성과 추모를 위한 것이지 조상신에 대한 신관에서 나온 것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일례로 천주교식으로 가정에서 추모의례를 행할 때는 제사상의 중앙에 십자가를 놓고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나서 십자성호를 긋는다. 제주가 고인에게 고하는 절차에서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성서의 말씀을 봉독하는 절차가 이어지고 제사를 마치면 참석자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의 성가를 부른다.

4) 기독교식

문옥표(2007)는 한국인의 경우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기일에 추도예배 혹은 추모식이라는 이름으로 변형된 조상의례를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이나 다른 지역의 기독교문화에서는 그 예를 찾기 힘든 한국 기독교의 독특한 현상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기독교의 도입과 확산이 반드시 유교식 의례 전통을 완전히 해체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제례의 변형된 양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논의하였다.

한국 기독교의 추도예배는 기독교식으로 변형된 유교식 기제의 대체의례로 서구 기독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현상이다. 단, 유교식 기제에서는 영혼은 몸을 떠나서도 지상에 머물러 있기도 하고 저승에 갔다가 다시 온다고도 여겨지지만 기독교에서는 영혼이 다시 지상에 나와 활동하지 않는다는 종교관을 갖기 때문에 추도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고인을 추모하는 것이다(이복규, 2009: 27-28).

가정에서의 기독교식 추모의례 절차는 일반

예배 형식으로 되어있다. 먼저 개식사를 행하고 신앙고백, 찬송, 기도, 성경봉독과 말씀, 기도, 추모, 찬송, 축도 혹은 주기도문 등의 순서를 기본 틀로 하여 일부 가감이 허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들어 고인을 추모하고 고인의 뜻을 되새기면서 부끄럽지 않은 자손이 될 것을 권면한다. 즉 추도예배를 통하여 가족들이 공동체로서 연대를 이루고 고인을 회상하면서 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권태환, 1999: 63-64). 이러한 기독교식 추도예배는 유교식 기제와는 달리 지방이나 신주가 없고 그 대신 고인의 사진을 놓고 진행하거나 그냥 진행하기도 한다. 음식을 준비한다 해도 예배 후 참석자들이 함께 먹기 위해 마련하는 것이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른바 제수를 따로 만들지는 않는다. 또한 유교식 기제에서와 같은 축문 읽기는 없다. 추도예배 중 기제의 축문 읽기 순서와 가장 근접한 것이 있다면 추모의 시간이지만 추모의 순서에서도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고인에 대해 회상을 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는 고인을 잘 모르는 자손들에게 고인의 미덕을 가르쳐 그 정신과 업적을 계승하도록 권면하는 의미가 강하다. 또한 기도의 절차상에서 고인을 위한 기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생전의 믿음과 행실로 구원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내용은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교리이다.

기독교 추도예배에는 여성도 동등하게 참여한다. 유교식 기제의 경우에는 남성이 그 주체로 참여하고, 여성들은 제수를 마련하는 보조적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비해 추도예배에서는 남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시작해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한다(이복규, 2005: 319-32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모의례의 의

의와 형식은 종교별로 다소의 차이를 지닌다. 추모의례에 있어 유교식, 불교식, 천주교식, 기독교식은 공통적으로 고인을 그리워하고 기리는 효에서 비롯되기는 하나 각각의 종교관에 의거하여 추모의례의 형식은 다르게 표출되며, 이는 가정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행되는 추모의례의 제반 절차와 내용을 결정짓는데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선행연구

1)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

제례에 대한 도시주부들의 의식구조를 연구한 한재숙 등(1989)의 논문을 살펴보면 주부들은 제례가 조상 추모와 친척간의 화목, 조상숭배의 본보기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전통제례의 기능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는 5점 만점에 친목도모 및 회연의 기능(3.570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교육 및 효의 기능(3.499점), 생활철학의 기능(3.214점), 종교적 기능(2.979점)의 순을 보였다. 정복미 등(2004)도 제사에 대한 주부들의 생각을 질문하였다. 그 결과 천주교, 불교, 기독교, 기타종교를 가진 주부들 모두 가족의 화목을 위해 제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응답의 비율이 다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주부들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족들의 화목 도모에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추모의례로 인한 주부들의 갈등이나 부담에 대한 인식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두경자(2000)는 생존 경쟁과 시간 제약이 심하여 살기가 더욱 급급해질 후대에 가서는 엄격하고 시간을 길게 필요로 하는 제례의식은 지속되기 힘들어 소멸될 위험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특히 장남 집에서 만며느리가 직접 음식을 준비하여 야간에 제사가 이루어지는 기본 골격이 여전히 유지됨으로써 현대인의 정서와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이길표(1981)의 연구에서 제사는 가문의 전통이므로 그대로 계승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인 응답을 보인 점과도 일부 연관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김시월(1997)도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제사가 배타시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가사노동에서의 역할분담, 가치관의 변화, 종교 등과 관련이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제사의 애로점을 조사한 두경자(2001)의 논문을 살펴보면 남성은 참석 불가능, 비용, 음식 준비의 순을, 여성은 음식 준비, 참석 불가능, 비용의 순을 보여 음식 마련은 여전히 여성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관련된 연구로 문옥표(2007)는 제례가 부계조상을 그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고, 노부모 봉양 및 봉제사에서 장남이 더 큰 책임이 있다는 인식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균분상속제의 실시, 호주제의 폐지, 여성중중원 자격 인정 등의 사회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관행과의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해 제례를 둘러싼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조건을 형성한다고 밝혔다.

이상 추모의례에 대한 주부들의 인식을 종합해보면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중요하게 여겨지고는 있지만 가사노동이나 시간 및 비용의 측면이 다소의 부정적 갈등과 부담의 상황으로 작용해 양자가 공존되는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추모의례의 긍정적 기능이 유지되는 가운데 의례의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추모의례 모델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2) 지향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

임옥행(1981)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후 제사에 대한 희망여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40·50대의 주부들은 가급적 지내주는 것

이 좋겠다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꼭 지내달라고 하겠다, 지내도 좋고 안 지내도 좋다, 지내지 않는 것이 좋겠다의 순으로 응답을 나타냈다. 도시주부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사후 제사가 이행되길 원하는지를 조사한 한재숙 등(1989)의 연구에서도 응답자의 약 73%가 제사를 원하였고, 나머지 응답자는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별로는 불교, 천주교, 무교의 경우 각각 응답자의 70% 이상이 제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독교의 경우에는 약 47%만이 사후 제사가 이행되길 바라고 있었다.

추모의례의 형식에 있어 1990년대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이길표, 1982; 박순천, 1986; 박수정, 1989; 이정우·김명나, 1993; 문옥표, 1998; 이정우·김연화, 1999)에서는 유교식 제례를 행하는 가정이 조사대상의 과반수이상으로 보고되었으며, 2000년대에 들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과 김계숙(2008)의 조사에서도 제사의 형식은 유교식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기독교식, 천주교식, 불교식의 순을 보였다. 그러나 문옥표(2007)가 언급한 바와 같이 그 내용에는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또한 사실인 까닭에 단순하게 사회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이 유지되고 있다는 해석을 내리기는 어렵다. 이는 향후의 제사에 대한 주부들의 의식을 조사한 정복미 등(2004)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좀 더 명료해진다. 즉 응답에 있어 제사를 내려오는 법도에 따르겠다(37.0%), 본인 나름대로 정성껏 모시겠다(35.4%), 가정의례준칙에 따라 행하겠다(9.5%), 어른이 생존하실 동안 하시는 대로 하겠다(7.4%), 어른이 생존하신 중이라도 차차 추모식 형태로 바꾸겠다(5.4%)는 견해를 나타내 일부에서는 기존의 의례 형식이 그대로 지속되기도 하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성을 갖추되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간소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예상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제례의 재구성모델을 제안한 두경자(2000)는 변화를 위한 방향으로 봉사범위는 부모 1대로만, 참석자는 고인의 자녀로만 한정하여 제사를 지내는 자녀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까지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외아들이나 외딸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외아들인 경우 부모와 장인장모를, 외딸인 경우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제사를 모두 봉사하고, 주관자도 형제자매가 동등하게 윤회를 하여 다 같이 자식 된 도리를 행할 수 있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이때 제사를 반드시 가정 안의 행례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정 밖에서도 행할 수 있어야 하며, 제사의 일시도 사망한 날이나 사망 전날 저녁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고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가까운 공휴일로 정하거나 낮에도 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도시 가족의 제사상속에 대한 의식을 조사한 김기경과 박혜인(2001)의 연구에서도 제사는 절이나 성당 등의 종교기관에서도 지낼 수 있다는 항목에 비교적 긍정적인 응답이 나타났다. 또한 출가한 딸이 제사를 모시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추모의례는 간소화가 지향되는 가운데 그 형식과 내용에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중년기 주부들을 대상으로 현행의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함과 동시에 향후 자녀세대에게 기대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영위하게 될 추모의례의 양상을 보다 명확히 예견하는 노력이 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조사대상자는 본 연구자와 친분이 있어 연구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되거나 선택된 조사대상자 및 기타 다른 사람의 추천을 받는 스노우볼(snowball) 방식을 통해 서울시에 거주하는 40·50대 중년기 주부들을 표집 하여 무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의 각 종교별로 10명씩 총 40명을 선정하였다.

중년기 주부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첫째, 오늘날 추모의례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남편과 더불어 주부의 역할이 커지게 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둘째, 추모의례에 내재되어 있는 개인과 가족 간 갈등의 요소나 부담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혼 년수가 10년 이상인 40·50대의 연령이어야 자신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응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앞으로의 추모의례의 모습을 예견하고 그를 토대로 지향해나가야 할 추모의례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둔 중년기 주부들이 어머니세대의 견지에서 응답한 내용을 토대로 추모의례의 대안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사연구는 2009년 8월 1일부터 2009년 10월 20일까지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기초로 연구대상자와의 일대일 심층면접을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공식적인 면담 시간은 평균 1시간 이었고, 한 사례 당 평균 2회 정도의 면담기회를 가졌다.

면담의 모든 내용은 녹음을 하였고 중요한 상황은 따로 메모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후 면담 내용을 모두 타이핑하여 자료화하였으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전화 통화로 자료를 보완하였다.

〈표 1〉 면접조사 내용

구분	내용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부의 연령, 직업형태, 며느리 순위, 주부의 학력, 주부와 남편의 종교, 결혼 년수, 동거가족, 가정의 월평균소득, 자녀의 수와 성별, 현행 추모의례의 형식, 추모대상범위, 일시와 장소, 주관자와 참석자
2	현행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 추모의례의 의의, 추모의례의 기능, 추모의례문화의 지속가능성, 추모의례 형식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 추모의례 준비로 인한 부담감
3	향후 자녀세대에게 기대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 자녀세대의 추모의례 이행에 대한 기대, 자녀세대에게 기대하는 추모의례의 이행모습(형식, 추모대상범위, 주관자와 참석자, 일시와 장소, 준비용품, 음식마련)

2. 조사내용 및 분석방법

중년기 주부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내용은 <표 1>과 같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현행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 향후 자녀세대에게 기대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로 구성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2009년 10월 25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면접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응답이 다양하게 나타난 조사내용들은 다각도적인 측면에서 분류하여 동일한 경향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소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인식을 포함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 분석함으로써 일반성과 특수성의 견해를 모두 담아내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면담을 통한 질적 연구의 특성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과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일반적인 결과와 결론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개인 및 가족 특성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가족 특성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주부의 연령은 40대가 14명, 50대가 26명으로 평균 연령은 51.3세였다. 직업형태는 전업주부 19명, 자영업 11명, 종일제 근무 7명, 시간제 근무 3명으로 직업을 가진 주부 21명, 전업주부 19명이었다. 며느리순위에 있어서는 맏며느리 18명, 외며느리 2명이었고, 둘째 며느리 이하가 20명이었다. 학력에 있어서는 중졸 3명, 고졸 18명, 대졸 17명, 대학원졸 2명으로 고졸 이하가 21명, 대졸 이상이 19명이었다. 주부의 종교는 무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각각 10명씩인 반면 남편의 종교는 무교 13명, 불교 10명, 기독교 9명, 천주교 7명, 유교 1명이었다. 무교를 제외하면 남편의 종교가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의 순을 보이는 것은 통계청(2005)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우리나라 종교의 유형별 분포와 일치하는 경향이였다. 평균 결혼 년수는 24.3년이었다. 동거가족에 있어서는 남편+자녀인 경우가 35명으로 대부분이었으며, 남편+자녀+시부모인 경우 2명, 남편만인 경우 1명, 남편+자녀+친정부모인 경우 1명, 남편+자녀+조카인 경우가 1명이었다. 자녀의 수는 2명인 경우가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녀가 3명인 경우가 6명, 자녀가 1명인 경우가 2명이었다.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약 347만 5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 가계 동향에

〈표 2〉 조사대상자의 개인 및 가족 특성

구분	주부 연령	직업 형태	머느리 순위	주부 학력	주부 종교	남편 종교	결혼 년수	동거가족	월평균 소득	자녀의 수		
										남	여	합
사례1	47	자영업	만머느리	고졸	무교	무교	14	남편+자녀+시부모	300	1	1	2
사례2	48	전업주부	둘째이하	대졸	무교	무교	25	남편+자녀	400	1	1	2
사례3	50	자영업	만머느리	대졸	무교	무교	23	남편+자녀	300	2	·	2
사례4	55	자영업	만머느리	고졸	무교	무교	20	남편+자녀	300	2	1	3
사례5	47	자영업	둘째이하	대졸	무교	무교	10	남편+자녀	500	·	1	1
사례6	48	전업주부	둘째이하	고졸	무교	무교	22	남편+자녀	400	1	1	2
사례7	52	전업주부	만머느리	고졸	무교	무교	30	남편+자녀	400	1	1	2
사례8	42	전업주부	둘째이하	대졸	무교	무교	13	남편+자녀	400	2	·	2
사례9	54	종일제근무	만머느리	중졸	무교	불교	30	남편+자녀	400	1	1	2
사례10	47	종일제근무	둘째이하	고졸	무교	무교	24	남편+자녀	300	2	·	2
사례11	55	시간제근무	둘째이하	대학원졸	기독교	기독교	28	남편+자녀	500	1	1	2
사례12	47	자영업	외머느리	고졸	기독교	기독교	21	남편+자녀	200	2	·	2
사례13	58	전업주부	만머느리	중졸	기독교	기독교	33	남편+자녀	200	2	·	2
사례14	53	자영업	둘째이하	대졸	기독교	기독교	28	남편+자녀	300	·	2	2
사례15	59	전업주부	둘째이하	고졸	기독교	기독교	27	남편+자녀	400	2	1	3
사례16	54	자영업	둘째이하	중졸	기독교	기독교	25	남편+자녀	500	1	1	2
사례17	50	자영업	만머느리	대졸	기독교	기독교	25	남편+자녀	500	1	2	3
사례18	47	전업주부	만머느리	고졸	기독교	기독교	21	남편+자녀	500	1	2	3
사례19	54	종일제근무	만머느리	대졸	기독교	무교	19	남편+자녀	500	1	·	1
사례20	53	자영업	만머느리	고졸	기독교	기독교	25	남편+자녀	300	2	·	2
사례21	59	전업주부	외머느리	고졸	천주교	천주교	26	남편+자녀	200	2	1	3
사례22	54	자영업	둘째이하	대졸	천주교	천주교	25	남편+자녀	300	1	1	2
사례23	50	전업주부	둘째이하	고졸	천주교	천주교	26	남편+자녀	400	1	1	2
사례24	43	시간제근무	만머느리	대졸	천주교	천주교	17	남편+자녀	400	1	1	2
사례25	41	종일제근무	만머느리	대졸	천주교	천주교	10	남편+자녀	500	1	1	2
사례26	48	전업주부	둘째이하	대졸	천주교	무교	23	남편+자녀	500	2	1	3
사례27	46	종일제근무	둘째이하	고졸	천주교	무교	20	남편+자녀	200	·	2	2
사례28	51	전업주부	둘째이하	고졸	천주교	천주교	27	남편+자녀	500	2	·	2
사례29	54	전업주부	만머느리	대졸	천주교	천주교	27	남편+자녀	400	1	1	2
사례30	55	자영업	둘째이하	대졸	천주교	무교	25	남편+자녀	300	2	·	2
사례31	56	전업주부	둘째이하	대졸	불교	불교	32	남편+자녀	400	1	1	2
사례32	52	전업주부	만머느리	고졸	불교	불교	31	남편	100	2	·	2
사례33	59	전업주부	만머느리	대졸	불교	유교	36	남편+자녀	300	1	1	2
사례34	55	전업주부	둘째이하	고졸	불교	불교	27	남편+자녀+친정부모	200	1	1	2
사례35	55	종일제근무	둘째이하	고졸	불교	불교	31	남편+자녀	200	2	·	2
사례36	57	전업주부	만머느리	대졸	불교	불교	32	남편+자녀+시부모	400	1	1	2
사례37	49	시간제근무	둘째이하	고졸	불교	불교	22	남편+자녀	300	1	1	2
사례38	45	종일제근무	둘째이하	고졸	불교	불교	22	남편+자녀+조카	100	1	1	2
사례39	51	전업주부	만머느리	대졸	불교	불교	24	남편+자녀	100	2	·	2
사례40	50	전업주부	만머느리	대학원졸	불교	불교	26	남편+자녀	500	1	1	2

서 우리나라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347만 6천 원이었던 점과 거의 일치한다.

2) 현행 추모의례의 특성

<표 3>을 보면 추모의례의 형식은 유교식 24사례, 기독교식 9사례, 유교식+천주교식 3사례, 유교식+불교식 2사례, 천주교식 1사례, 불교식 1사례로 나타났다. 이중 유교식은 전통적인 유교의 기제 절차로, 기독교식은 추도예배로 추모의례가 이행되는 것이다. 유교식+천주교식은 유교식 기제로 추모의례를 행하면서 천주교식 기도가 행해진다. 유교식+불교식은 유교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절은 불교식으로 행하며, 철상을 하기 전 반야심경을 독송한다(사례35). 사례36의 경우는 유교식+불교식 추모의례이지만 전반적으로 유교식 기제를 행하면서 철상 전에 반야심경만 독송한다. 천주교식은 성당에서 연미사로 추모의례를 행하는 경우, 불교식은 추모의례를 사찰에서 천도재로 이행하는 경우이다.

추모의례의 대상 범위는 1대조까지가 14사례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대조 11사례, 2대조 9사례, 4대조 6사례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모의례의 대상범위를 추모의례의 형식과 연관 지어 보면 유교식 추모의례는 3대조 9사례, 2대조 6사례, 1대조 5사례, 4대조 4사례로 나타났다. 유교식+천주교식 추모의례는 1대조 1사례, 3대조 1사례, 4대조 1사례로 나타났고, 유교식+불교식 추모의례는 2대조 1사례, 3대조가 1사례였다. 기독교식 추모의례는 1대조 7사례, 2대조 2사례였고, 천주교식 추모의례는 4대조 1사례, 불교식 추모의례는 1대조 1사례였다. 이를 보면 유교식에서는 3대조, 기독교식에서는 1대조까지를 대상범위로 추모의례가 행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추모의례의 일시와 장소는 유교식, 유교식+천주교식, 유교식+불교식(사례35)의 경우 주관

자 집의 거실이나 안방에서 고인이 돌아가신 전날 저녁(9~12시) 혹은 돌아가신 날 저녁(8~12시)에 행해졌다. 유교식+불교식(사례36)은 돌아가신 날 오전 6시에, 사찰에서의 불교식과 성당에서의 천주교식 추모의례는 돌아가신 날 저녁에 이행되고 있다. 반면 기독교식 추모의례는 돌아가신 날 저녁(7~8시)이나 돌아가신 전날 저녁 혹은 돌아가신 날을 앞둔 토요일에 주관자 집의 거실이나 안방에서 행하고 있고, 봉안당에서 이행하는 경우(사례18)에는 돌아가신 전날 오전에 이루어지고 있다. 종합해보면 기독교식을 제외하고 추모의례는 돌아가신 전날 행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 이는 제례를 고인이 사망한 전날 저녁에 주로 지낸다고 한 연구들(이길표, 1982; 박수정, 1989; 김인옥, 1997; 김계숙, 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추모의례의 주관자는 남편과 주부인 경우가 18사례(면접대상자의 남편이 장남인 경우 13사례, 둘째 이하인 경우 3사례, 독자인 경우 2사례), 아주버님인 경우(면접대상자의 남편이 둘째 이하) 11사례, 시어머님인 경우 6사례, 시아버님인 경우 2사례, 시댁형제들이 돌아가며 주관하는 경우 2사례, 시댁의 장자와 장손이 돌아가며 주관하는 경우가 1사례였다. 추모의례의 형식과 주관자를 연관 지어보면 유교식 추모의례의 주관자는 아주버님 10사례, 남편과 주부 8사례, 시어머님 4사례, 시아버님 2사례였다. 기독교식 추모의례의 주관자는 남편과 주부 7사례, 시댁형제들이 돌아가며 주관하는 경우가 2사례였다. 기독교식 추모의례의 경우 특이한 점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의례를 주관해서 남편의 형제순위가 둘째 이하여도 의례의 주관자가 되며(사례14,15), 맘머느리인 주부가 남편을 대신해 의례에서 주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사례19). 유교식+천주교식 추모의례의 주관자는 시어머님 1사례, 남편과 주부 1사례, 시댁의 장남과 장손이 돌아가며 주관하

(표 3) 조사대상자의 현행 추모의례의 특성

구분	형식	추모대상 범위	일시	장소	주관자	남편과 주부 이외의 참석자				
						자녀	서부모 님	형제자매와 배우자	사촌형제와 배우자	조카
사례1	유교식	1 대조	돌아가신 전날 11시	우리집 거실	시아버님	○	○	○		
사례2	유교식	2 대조	돌아가신 전날 10시	시댁 거실	아주버님		○	○		○
사례3	유교식	1 대조	돌아가신 날 8시	우리집 거실	남편과 나			○		
사례4	유교식	1 대조	돌아가신 전날 9시	우리집 거실	남편과 나	○				
사례5	유교식	2 대조	돌아가신 날 저녁	시댁 거실	시아머님		○	○		○
사례6	유교식	2 대조	돌아가신 전날 저녁	시댁 거실	시아머님	○	○	○		
사례7	유교식	4 대조	돌아가신 전날 9시	우리집 거실	남편과 나	○		○	○	
사례8	유교식	3 대조	돌아가신 전날 9시	시댁 거실	아주버님			○	○	
사례9	유교식	1 대조	돌아가신 전날 10시	우리집 거실	남편과 나	○		○		
사례10	유교식	3 대조	돌아가신 전날 저녁	시댁 거실	아주버님	○		○	○	
사례11	기독교식	2 대조	돌아가신 날을 앞둔 토요일	시댁 거실	시댁형제들이 돌아가며			○		
사례12	기독교식	2 대조	돌아가신 날 7시	시댁 안방	남편과 나	○	○			
사례13	기독교식	1 대조	돌아가신 날 저녁	우리집 거실	남편과 나	○		○		
사례14	기독교식	1 대조	돌아가신 날 8시	우리집 거실	남편과 나			○		
사례15	기독교식	1 대조	돌아가신 날 저녁	우리집 거실	남편과 나	○				
사례16	유교식	4 대조	돌아가신 날 저녁	시댁 거실	아주버님			○		
사례17	기독교식	1 대조	돌아가신 날 저녁	우리집 거실	남편과 나	○		○		
사례18	기독교식	1 대조	돌아가신 전날 오전	봉안당	시댁형제들이 돌아가며	○	○	○		○
사례19	기독교식	1 대조	돌아가신 전날 9시	우리집 거실	남편과 나	○	○	○		
사례20	기독교식	1 대조	돌아가신 전날 저녁	우리집 거실	남편과 나	○		○		
사례21	유교식+ 천주교식	3 대조	돌아가신 전날 저녁	우리집 거실	남편과 나	○				
사례22	유교식	3 대조	돌아가신 절날 9시	시댁 안방	아주버님	○	○	○		
사례23	유교식+ 천주교식	4 대조	돌아가신 전날 12시	시댁 거실	장자·장손이 돌아가며	○	○	○	○	○
사례24	유교식+ 천주교식	1 대조	돌아가신 전날 저녁	우리집 거실	시아머님		○	○		
사례25	천주교식	4 대조	돌아가신 날 저녁	성당의 성전	시아머님		○	○	○	○
사례26	유교식	2 대조	돌아가신 날 8시	시댁 거실	아주버님	○	○	○		○
사례27	유교식	2 대조	돌아가신 전날 12시	시댁 거실	시아머님	○	○	○		○
사례28	유교식	2 대조	돌아가신 날 9시	시댁 거실	아주버님	○		○		○
사례29	유교식	1 대조	돌아가신 전날 10시	시댁 거실	시아머님	○	○	○		
사례30	유교식	3 대조	돌아가신 전날 9시	시댁 안방	아주버님	○		○	○	
사례31	불교식	1 대조	돌아가신 날 저녁	사찰 제사실	남편과 나	○				
사례32	유교식	3 대조	돌아가신 날 9시	우리집 거실	남편과 나	○	○	○	○	
사례33	유교식	4 대조	돌아가신 날 8시	우리집 거실	남편과 나	○		○		
사례34	유교식	3 대조	돌아가신 전날 10시	시댁 거실	아주버님			○		
사례35	유교식+ 불교식	3 대조	돌아가신 전날 10시	시댁 거실	아주버님			○	○	○
사례36	유교식+ 불교식	2 대조	돌아가신 날 오전 6시	우리집 거실	남편과 나	○		○		
사례37	유교식	3 대조	돌아가신 전날 12시	시댁 거실	시아버님	○	○	○	○	○
사례38	유교식	3 대조	돌아가신 전날 12시	시댁 거실	아주버님	○		○	○	
사례39	유교식	4 대조	돌아가신 전날 저녁	우리집 거실	남편과 나	○		○		
사례40	유교식	3 대조	돌아가신 전날 12시	우리집 거실	남편과 나	○		○	○	

는 경우 1사례로 나타났다. 유교식+불교식 추모의례의 주관자는 아주버님 1사례, 남편과 주부 1사례였다. 천주교식 추모의례의 주관자는 시어머님이 이행하는 1사례로 나타났다. 불교식 추모의례의 주관자는 남편과 주부가 이행하는 1사례로 기독교식에서와 유사하게 남편의 형제순위가 둘째 이하여도 불심(佛心)이 깊은 사람이 제반 의례를 결정하고 주관을 담당하는 경우였다(사례31).

추모의례에 참석하는 가족으로는 남편과 주부 외에 자녀 그리고 남편의 형제자매와 배우자가 대표적이었다. 이는 김인옥(1997)의 연구에서 제례의 참석범위가 형제까지로 나타난 결과와 부합된다. 대개 추모대상범위가 2대조까지인 경우 시부모님과 조카까지 참석하며, 3대조 이상의 경우에는 남편의 사촌형제와 배우자도 추모의례에 참석하고 있다.

2. 현행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

1) 추모의례의 의의

중년기 주부들이 인식하는 추모의례의 의의는 조상을 향한 정성이라는 응답이 21사례로 가장 많았다.

“정성이지, 정성.”(사례12)

“조상에 대한 후손의 정성이지.”(사례21)

“정성이죠. 우리 형님도 제사를 참 정성스럽게 지내요. 집도 깨끗하게 치우고 음식도 정갈하게 하고 무척 정성스럽게 지내요.”(사례28)

또한 “돌아가신 조상을 생각하는 정이죠”(사례1), “조상 모시는 거는 마음이에요”(사례8), “조상님을 기억하는 것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옛정이기도 해요”(사례22)라는 응답처럼 추모의례를 조상을 기리는 정(情)의 문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14사례로 나타났

다. 이외에 “내가 못 본 조상의 제사에도 참여하잖아요. 효라고 생각해요.”(사례37)“라는 응답과 같이 효를 실천하는 도리로 그 의의를 인식하는 경우는 5사례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고인을 향한 정성이자 그분을 기리는 마음으로 인식되고 있는 추모의례의 의의는 제사 행례의 실천적 의무와 목적(홍현주, 1986; 박수정, 1989; 이정우·김명나, 1990)으로서의 효를 넘어서 한국인의 정서에 내재된 효 가치관의 발로로 보인다.

2) 추모의례의 기능

추모의례를 행하는 기능에 대한 중년기 주부들의 인식은 가족 간 화목과 협동을 도모하게 된다는 응답이 10사례, 공동체적 일체감을 갖게 된다는 응답이 9사례로 양자 모두 가족들의 화합을 도모하게 되는 공통점을 지닌다.

“추도예배 끝나고 음식을 먹을 때 가족 간의 친목이 도모되고 그런 거 같아요. 다 바쁘니까 만나기 어려운데 그날은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만나잖아요. 같이 밥을 먹으면서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 묻고 그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서로 친교하고 화목 할 시간이 돼요.”(사례11)

“유대관계가 이루어지죠. 일단 모이니까. 결국 친목 도모지.”(사례34).

또한 추모의례에는 생활교육의 기능도 함축되어 있다. 즉 “부모님이 가르쳤던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돼요”(사례14), “남기신 유지를 기억하고 보다 열심히 생활하게 되죠”(사례40)라는 응답과 같이 고인이 남기신 교훈을 상기하고 열심히 생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경우가 7사례, “자녀들에게 효의 근본을 알게 해주는 기회가 돼요”(사례4)라는 응답처럼 효를 일

깨우는 교육의 계기로 인식하는 경우도 7사례로 나타났다.

한편 “공경을 다하는 후손은 복을 받게 된다고 생각해요”(사례1,7,25,34)라는 응답에서처럼 추모의례를 통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얻는 사례도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간추리면 김인옥(1997)과 정복미 등(2004)의 연구에서 가족 간 친목도모 및 회연의 기능, 교육 및 효의 기능, 종교적 기능의 순으로 제례의 기능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3) 추모의례문화의 지속가능성

우리 사회에서 추모의례문화의 지속가능성을 대해 질문한 결과 34사례의 주부들이 점차 형식이나 절차는 축소되면서 간소화된 모습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을 보였다.

“현재와 같이 차려놓고 형식적으로 지내는 거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세대는 가능한데 현재 큰집에서 밑에 세대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개네들한테까지 이런 부담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큰며느리나 이미 이런 제사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세대는 자식 세대까지 그 부담을 넘겨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절에 모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없애고, 일 년에 한두 번 부모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모아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간소화 시킬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사례26).

그밖에 사례1,3,13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추모의례문화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응답하였고, 반대로 사례7,10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모습대로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편 사례2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추모의례문화가 등장할 것이라는 응답을 나타내기도 했

다. 이는 대도시에서 사회 변화와 특정 종교인구의 증감에 따라 추모의례의 수행정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을 논의한 장상옥(2004)의 연구결과와도 일부 연관된다.

4) 추모의례의 형식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

가족들 간 종교적인 차이는 추모의례의 형식에서 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조사 결과 가족 간 존재하는 갈등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일부에선 다른 종교와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를 수용하는 노력을 기하거나 형식적인 면에서 절충을 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남편과 나는 기독교인데 시댁의 아주버님은 유교식으로 해서 갈등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시댁 가족들은 신위에 절을 하지만 나와 남편은 조용히 기도로 대신해요.”(사례16)

“가족들이 합의를 하여 먼저 유교식의 추모의례를 행한 다음 천주교식으로 위령기도와 가족기도를 드리지요.”(사례23)

“저희 집은 조금 갈등이 있는데 종교가 달라가지고. 어머님이랑은 저랑은 천주교인데 형제들은 달라가지고요. 그래도 그냥 서로 존중해 주기로 했어요. 개신교신자들은 절 안하잖아요. 기도만 하잖아요. 제가 시집가서 남편, 어머님, 아버님 다 세례 받게 됐고요. 둘째집이랑 시누이는 개신교예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완전 유교식이었어요. 지금은 유교식과 천주교식 같이 하니까 어머님이 크게 거부 반응은 없으세요.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은 절을 하지 않고 기도로 대신해요.”(사례24)

“시동생이 기독교인이라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지만 서로 합의를 해서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 시동생은 묵념을 해요.”(사례32)

이상을 종합해보면 추모의례의 형식으로 인

한 갈등은 주관자의 종교와 참석자의 종교가 다른 점에서 기인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정의 경우 가족 간 합의를 통해 유교식+천주교식이 공존되는 양상을 띠고 있고, 가정에 따라 종교가 기독교인 가족원이 참석한 경우 절을 대신해 기도나 묵념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노력으로 반영된다.

5) 추모의례 준비로 인한 부담감

만머느리의 경우 추모의례를 위한 준비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시간, 비용, 가사노동의 면에서 나타나며,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적 제약은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업을 갖고 있어 준비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만머느리라서 어쩔 수 없이 참고하지요.”(사례3)

“직장생활로 인한 시간부족, 제수 마련에 많은 부담이 있지만 감수하고 정성껏 준비해요.”(사례9)

“시장 보는 게 제일 어렵지. 우리 아저씨는 장 보는데 들어주면 좋잖아. 절대 안 해줘.”(사례4)

“비용을 우리 집에서 다 내니까 솔직히 부담돼. 상부상조하면 좋겠어.”(사례7)

이와 같이 만머느리가 갖는 추모의례에 대한 부담감은 두경자(2001)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다. 즉 제사를 위해 만머느리가 직접 음식을 준비하는 기본 골격이 유지됨으로써 현대인의 정서와 생활에 다소의 부담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추모의례 준비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중년기 주부들 중 사례7,9는 가족들이 의논을 통해 추모의례의 음식비용을 상호 분담하고 더불어 가사 분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추모의례에 대한 부담감은 둘째며느리 이하에서도 나타난다. 사례2는 “둘째며느리로서 제사 비용을 조금만 냈더니 민망하고 마음도 불편해서 그 다음 기제부터는 다시 많이 냈다”고 하였다. 사례5,6은 “음식 준비 돕기가 힘들고 부담이 된다”고 하였으며, 사례37은 “기제 시간이 너무 늦다”는 점을 부담감으로 밝히기도 했다.

3. 향후 자녀세대에게 기대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

1) 자녀세대의 추모의례 이행에 대한 기대

중년기 주부들이 갖고 있는 자녀세대의 추모의례 이행에 대한 기대는 주부의 종교가 무교, 천주교, 불교인 경우 사례31을 제외하고 모두 기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기독교인 주부들의 경우에는 10사례 중 7사례에서만 기대감을 보였다. 이처럼 자녀세대의 추모의례 이행을 원하는 중년기 주부들이 밝힌 기대의 이유는 가족 간 공동체적 화목과 우애를 위해서가 18사례, 부모와 조상을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가 15사례,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가 4사례로 나타났다.

“가족을 생각하고 형제자매간 우애를 위해서지.”(사례6)

“조상의 뿌리를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해.”(사례36)

“한국인으로서의 의식을 갖고 전통을 유지했으면 해서.”(사례26)

이들 자녀세대에게 추모의례 이행의 기대감을 갖는 중년기 주부들 중 12사례에서는 자녀들이 가정을 비롯해 대학, 종교기관, 대중매체 등을 통해 “추모의례의 의의를 알고 그에 필요한 마음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지”라고 언급하

었다. 안혜숙 등(2002)도 다음 세대가 조상을 추모하는 의례를 가치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반면 자녀세대의 추모의례 이행을 기대하지 않는 주부들은 “자녀가 바쁜 생활 가운데 추모의례로 인해 힘들지 않았으면 해서”(사례31),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를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사례13,19),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제사이니까”(사례14)라는 응답을 나타냈다.

2) 자녀세대에게 기대하는 추모의례의 이행 모습

중년기 주부들이 자녀세대에게 바라는 추모의례의 이행 형식은 주부의 종교별로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 무교인 주부들은 자녀가 유교식 추모의례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례3,5는 자녀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기독교인 주부들은 자녀가 추모의례를 행한다면 기독교식으로 이행할 것을 기대했다. 천주교인 주부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추모의례 형식은 천주교식 4사례, 유교식+천주교식 3사례, 유교식 2사례로 나타났고, 사례22처럼 자녀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종교가 불교인 주부들은 자녀가 유교식 추모의례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례34는 불교식 추모의례를, 사례36은 유교식+불교식 추모의례를 기대하였고, 사례35는 자녀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

추모대상의 범위에 있어서는 2대조까지가 18사례, 1대조까지가 13사례로 주가 되었지만 5사례는 현세대처럼 3대조까지로 해야 한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들 응답 중에는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세대를 합쳐 혹은 부부를 함께 모시고 추모의례를 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자녀세대가 1년에 여러 번 제사지내는 것

은 힘들니까 제일 윗분을 기준으로 합쳐서 지내도 좋다.”(사례32)

“부모님 두 분을 같은 날 함께 모시는 것도 좋아.”(사례33)

추모의례를 주관할 사람으로는 맏이(예: 장남 혹은 장녀)여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일부에서는 믿음이 좋은 자녀가 담당하면 된다(사례11,12) 혹은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주관해도 된다(사례15,25)고 응답하였다. 참석자로는 추모대상이 1대조까지인 경우는 자녀가, 2대조 이상인 경우는 자녀와 사촌형제자매가 참석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추모의례의 일시는 돌아가신 날 저녁이 18사례, 돌아가신 전날 저녁이 12사례로 응답되었고, 이외에도 돌아가신 날을 앞둔 주말 저녁(사례2)이나 공휴일(사례3) 혹은 참석자들이 모이기 편한 시간(사례11) 등의 응답도 보였다. 또한 시간에 있어 자녀세대가 다음날 직장 출근을 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사례4)는 견해도 있었다.

추모의례가 이행되길 바라는 장소로는 주관자의 가정으로 응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성당(사례23,25,28,29)이나 사찰(사례34)과 같이 종교기관 혹은 추모시설로 찾아와주길 원하는 응답도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성당에다가 그냥 연미사를 하는 것도 괜찮고. 끝나면 가족들이 모여 외식하고”(사례25)

“내가 애들 보고도 미리 얘기했지만 엄마는 화장을 하라고 했어. 정현이 보고 해 줄 수 있으면. 요새는 절에 납골당이 법당 밑에 있어. 왜 봉국사 있잖아. 거기는 거기 밑에 있어. 그런 데에 해주면 고맙고. 아니면 할 수 없고. 형편에 따라서. 하지만 납골당에 모시지 않고 뿌리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 자식들이 어디 가서 나를 찾아볼 거야...천도재를 마친 후 음식

은 공양간에서 먹으면 되고.”(사례34)

“부모가 봉안된 곳을 찾아가 국화 한 송이라도 놓아드리고 오면 돼. 두 형제가 부모라는 끈으로 이어짐을 기억하는 것이 되는 거지.”(사례3)

“지금처럼 돌아가신 전날 오전 봉안당에서 기도를 드린 후 밖에서 외식을 해도 좋겠다.”(사례18)

추모의례를 위한 준비용품으로는 유교식 추모의례의 경우 제례용품이 주가 되었으며, 유교식+천주교식, 유교식+불교식 추모의례의 경우에는 제례용품 외에 종교적 물품(예: 십자가, 기도서, 성가, 반야심경)을, 기도교식 추모의례에서는 성경과 찬송가, 천주교식 추모의례에서는 영적예물, 불교식 추모의례에서는 대중공양에 대한 언급이 나타났다. 참석자들의 복장은 정장을 착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지만 11 사례에서는 단정한 복장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음식마련은 집에서 성의 있게 만들되 간소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그 밖에 가족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고인이 좋아하셨던 음식 혹은 구입한 음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지금보다 간소하게. 적게 하는 거지 뭐.”(사례4)

“살아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약간 하면 되는 거야.”(사례28)

“고인이 좋아하셨던 음식으로 주로 하고.”(사례22)

“지네들이 알아서 하겠지. 아마 지금 했던 거 보다는 간소하게. 그러면 개네들은 과일만 놓고 하든가 그러겠죠. 사서 하든가.”(사례36)

“가능하면 집에서 하고 불가능하면 사도 좋아요. 형편이 안 되면 어쩔잖아요, 준비할 사람 없으면 사서라도 해야지.”(사례2)

음식마련에 드는 비용은 형제들이 분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26사례로 주관자가 혼자 부담하거나 가정의 형편에 따라 한다는 응답보다 많이 나타났다.

“음식 준비하는 거는 서로 조금씩 할당해서 형제들이. 딸도 뭐 하나 만들어 올 수 있는 거고 괜찮잖아요. 너무 맏이에게 부담을 주니까 비용도 분담해서.”(사례22)

3. 추모의례 모델

앞서 살펴본 중년기 주부들의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과 향후 자녀세대에게 기대하는 추모의례에 대한 견해를 토대로 추모의례의 장소에 따른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가정에서의 추모의례

주관자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델(표 4)은 형식별로 유교식의 기제, 기독교식의 추도예배, 유교식 기제와 천주교식 요소의 결합, 유교식 기제와 불교식 요소의 결합으로 나뉜다. 추모대상의 범위는 1대 혹은 2대로 한하고 주관은 맏이가 하되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은 자녀 혹은 자녀들이 돌아가며 이행할 수도 있다. 추모의례 참석자는 부부 외에 자녀, 주관자의 형제자매와 배우자로 한다. 추모의례 시 참석자들 간에 종교적 차이가 있는 경우 사전에 대화를 통해 이해와 수용을 위한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날짜와 시간은 기일이나 기일을 앞두고 가족이 모일 수 있는 날 저녁시간으로 한다. 참석 시에는 정장이나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준비용품으로 유교식은 제례 관련용품, 기독교식은 성경·찬송가를 준비한다. 유교식 기제와 천주교식 요소의 결합은 제례용품 외에 십자가·기도서·성가를, 유교식 기제와 불교식 요소의 결합은 제례용품과 반야심경을 준비한다. 음식은

〈표 4〉 가정에서의 추모의례

장소	주관자의 가정			
형식	유교식 기제	기독교식 추도예배	유교식+천주교식 요소	유교식+불교식 요소
대상 범위	1대 혹은 2대			
주관자	만이 혹은 신앙이 좋은 자녀 혹은 자녀들이 돌아가며			
참석자	부부, 자녀, 형제자매와 배우자			
날짜/시간	기일 혹은 기일을 앞두고 가족이 모이기 가능한 날의 저녁시간			
복장	정장 혹은 단정한 복장			
준비용품	제례용품	성경, 찬송가	제례용품, 십자가, 기도서, 성가	제례용품, 반야심경
음식	집에서 직접 만들거나 구입 혹은 분담해서 마련			
음식비용	형제들이 분담			

〈표 5〉 종교기관에서의 추모의례

장소	성당	사찰
형식	연미사	천도재
대상 범위	1대 혹은 2대	
주관자	신앙이 좋은만이 혹은 자녀들이 돌아가며(집례는 종교기관의 성직자)	
참석자	부부, 자녀, 형제자매와 배우자	
날짜/시간	기일 혹은 기일을 앞두고 가족이 모이기 가능한 날짜와 시간	
복장	정장 혹은 단정한 복장	
준비용품	미사 준비물, 영적예물	제물, 대중공양
음식	연미사 후 인근 식당에서 식사	천도재 후 공양간에서 식사
음식비용	형제들이 분담	

〈표 6〉 추모시설에서의 추모의례

장소	봉안당, 산소, 수목공원
형식	목념이나 기도 혹은 배례
대상 범위	1대 혹은 2대
주관자	만이 혹은 자녀들이 돌아가며
참석자	부부, 자녀, 형제자매와 배우자
날짜/시간	기일 혹은 기일을 앞두고 가족이 모이기 가능한 날의 낮 시간
복장	정장 혹은 단정한 복장
준비용품	꽃
음식	외식을 하거나 야외에서 먹을 음식을 서로 분담해서 준비
음식비용	형제들이 분담

집에서 직접 만들거나 일부는 구입 혹은 형제들이 분담해서 마련한다. 고인이 평소 선호했고 가족들도 좋아하는 음식을 포함하는 것도 좋다. 기독교식은 추도예배 후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한다. 음식마련 비용은 형제들이 분담하도록 한다.

2) 종교기관에서의 추모의례

면접조사 결과 주관자의 종교가 천주교, 불교인 경우에는 종교기관에서의 추모의례에 대한 향후의 바람을 나타내고 있어 성당의 경우 연미사로, 사찰의 경우 천도재로 진행되는 모델(표 5)을 제안하고자 한다. 추모의 대상범위는 1대 혹은 2대로 하고 신앙이 좋은 맏이 혹은 자녀들이 돌아가며 제반준비를 주관한다. 추모의례의 집례는 종교기관의 성직자에게 의뢰한다. 참석자는 부부 외에 자녀, 주관자의 형제자매와 배우자로 한다. 날짜와 시간은 기일 혹은 기일을 앞두고 성당 혹은 사찰과 협의 하에 가족들이 모이기 가능한 때로 한다. 정장이나 단정한 복장을 착용한다. 준비용품으로는 성당의 경우 미사 준비물과 영적예물, 사찰의 경우 제물과 대중공양을 마련한다. 성당에서 연미사를 드린 후에는 인근 식당을 예약해서 참석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사찰의 경우는 재를 지낸 후 공양간에서 식사를 하도록 한다. 이때 식사비용은 형제들이 상호 분담하도록 한다.

3) 추모시설에서의 추모의례

오늘날 장례문화가 화장으로 바뀌면서 추모시설은 실내 봉안당과 야외의 산소 혹은 수목공원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모델(표 6)로는 묵념이나 기도 혹은 배례로 시작하여 참석자들이 잠시 추모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추모의 대상범위는 1대 혹은 2대로 하고 주관은 맏이 혹은 자녀들이 돌아가며 한다. 참

석자는 부부 외에 자녀, 주관자의 형제자매와 배우자로 한다. 날짜와 시간은 기일 혹은 기일을 앞두고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 가능한 낮 시간(예: 주말, 공휴일)으로 한다. 참석 시 정장이나 단정한 복장을 한다. 준비용품으로는 꽃을 마련한다. 면접대상 중 몇몇 중년기 주부들(사례1,6,9,11,17,18,40)은 자녀세대가 이행할 추모의례가 가족 간 화목한 만남의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추모시설에서는 의례를 마친 후 식당에서 외식을 하거나 준비해간 음식을 야외에서 나누어 먹으면서 고인을 회상하는 가운데 화합의 시간을 갖도록 한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노력해야 나아가 할 바람직한 추모의례와 관련 모델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면접조사 결과 중년기 주부들은 추모의례의 의의를 조상을 향한 정성의 표현으로, 고인을 기리는 정(情)의 문화로 인식하고 있어 정서적 측면에 내재된 효의 가치관이 엿보인다. 이로 인해 추모의례는 가족들의 화목과 협동을 도모하고 공동체적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계기로, 조상의 교훈과 유지를 기억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가운데 효의 근본을 일깨우는 자녀교육의 기회로 그 기능적 측면이 중요하게 언급된다. 이 같은 인식은 자녀세대도 추모의례를 통해 부모와 조상을 기억하면서 가족 간 화목과 우애를 돈독히 하고 이러한 모습을 가족의 전통으로 이어가길 바라는 어머니세대의 기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에 바쁘게 변화되는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정기적으로 부모와 조상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마음과 정성이 담긴 정(情)의 문화로서 추모의례의 본질적 의의

를 재조명하여 가족의 공동체적 화합과 효 교육의 장으로써 추모의례의 긍정적 기능이 실현될 수 있는 추모의례 모델이 다음 세대를 위한 과제로 부각된다.

둘째, 우리 사회 내 추모의례문화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추모의례의 형식이나 절차는 점차 축소되면서 보다 간소화(예: 추모대상범위, 행례일시, 음식준비)된 모습으로 지속될 것이 예견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 듯 어머니세대로서 중년기 주부들은 자녀세대가 추모의례를 행하는 의의를 바르게 알고 그에 필요한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가정과 종교기관들은 추모의례문화 교육의 주체로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며, 자녀세대에게 친숙한 인터넷과 TV 등의 대중매체는 추모의례의 의미를 올곧게 전달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추모의례의 주관자가 윤회되거나 아들과 딸의 구분보다는 맏이로 인식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고, 출산율이 낮아져 외동이 증가하는 사회 현실을 직시하여 대학에서는 바람직한 추모의례 모델을 연구함과 동시에 남녀학생 모두에게 종교별 추모의례의 절차와 제반 준비사항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중년기 주부들이 자녀세대에게 기대하는 향후 추모의례문화의 변모 속에는 주관자가 바뀌면서 자녀의 의사에 따라 지금과는 다른 형식으로 변화되거나 혹은 종교별 추모의례의 접목 형식이 생겨날 수도 있을 것이며, 가정이 아닌 종교기관(예: 성당, 사찰)이나 추모시설(예: 봉안당, 산소, 수목공원)에서 추모의례를 행하는 형식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추모의례의 종교적 차이를 무조건 거부하기 보다는 가족 간 대화를 통해 수용적 이해와 대안 모색을 위한 합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추모의례

를 위한 음식마련에 있어서도 모든 가족원들이 시간과 비용, 가사노동의 면에서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가족 상황에 적합한 준비 및 이행의 재조정 모델 구상에 함께 노력을 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형화된 많은 제사음식을 만드는 부담감을 일부 해소하기 위해 고인과 함께 가족들이 즐겨먹었던 음식을 포함하여 대체하는 것도 심리적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시대와 종교에 따라 추모의례의 형식적인 면은 변모하지만 정서적으로나 교육적인 면에서 그에 내재된 본질적 의의는 변화될 수 없다고 본다. 추모의례가 가정의 갈등적 요소로 그치는 것이 아닌 가장 친밀한 영역에서의 의례적 연행임을 볼 때 가족원 모두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가정의 상황에 적합한 추모의례의 재문화화(re-enculturation)가 요구된다. 우리에게 있어 추모의례는 오랫동안 이어져온 정신문화로 우리가 고인을 추모하는 가운데 가족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다음 세대가 그에 담긴 정신을 배우고 미래로 이어가길 바라는 문화적 유산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면 본 논문에서는 중년기 주부만을 대상으로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데 그쳤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부부를 대상으로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부부간 추모의례에 대한 인식 연구 및 앞으로 함께 지향해나가야 할 추모의례의 모델 정립 연구가 요청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중년기 주부들을 조사하였으나 지역적으로 사례 조사의 범위를 넓혀 지역별 추모의례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향후 추모의례문화의 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예견하기 위한 측면에서 자녀세대들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연구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추모의례의 모델을 제안하는데 그쳤으나 후속 연구에

서는 추모의례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보다
더불어 수정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구미래(2009). 일생에 대한 불교적 관념과 불교 일생의례의 특성. 비교민속학, 39, 225-257.
- 2) 권태환(1999). 조상추모예식의 선교적 방향 연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계숙(2008). 가족주의·제례의식·제례행례가 제례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 김기경·박혜인(2001). 도시 가족의 재산·제사 상속 의식과 행동의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9(1), 269-281.
- 5) 김미영(2009). 관혼상제에 투영된 유교적 세계관. 비교민속학, 39, 331-360.
- 6) 김상혁(1996). 관혼상제. 서울: 하서출판사.
- 7) 김시덕(2009). 한국 일생의례의 아시아적 보편성과 고유성. 비교민속학, 39, 69-96.
- 8) 김시월(1997). 제사의 행태와 제사의 지속성 의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생활문화·예술 논집, 20, 67-92.
- 9) 김영수(2002). 한국 가톨릭에 수용된 민간신앙적 요소. 한국민속학, 35, 5-27.
- 10) 김은정(2006). 추모의식을 통한 가족관계의 회복. 침례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김인옥(1990). 제사 시 제수에 관한 일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김인옥(1997). 전통제례에 관한 생활문화적 고찰과 현행제례의 실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두경자(2000). 우리나라 제례의 검토와 제례 재구성모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147-170.
- 14) 두경자(2001). 제례 재구성 모델의 실증적 검증을 통한 제례 모델 재구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241-263.
- 15) 문옥표(1998). 한국인의 가정의례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인문과학, 79, 147-174.
- 16) 문옥표(2007). 가정제례의 변용을 통해 본 현대 한국인의 가족관계와 젠더. 한국문화인류학, 40(2), 287-319.
- 17) 문옥표·정양환·최제숙·이충구 역주(2000). 증보사례편람. 조선시대 관혼상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18) 박병구(2003). 한국전통제례와 추모식에 대한 연구.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박수정(1989). 도시주부의 제례행례의식과 제례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 박순천(1986). 도시주부의 가정생활관과 제사행례의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1) 박일영(2009). 천주교 일생의례의 종교적 특성과 세계관. 비교민속학, 39, 129-152.
- 22) 박혜인·조은숙(2001). 도시지역의 가족/친족의례 실태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67-184.
- 23) 불교방송(2011). <http://www.bbsi.co.kr>.
- 24) 안숙자·박경란(2001). 한국주부의 제례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생활과학논집, 14, 49-68.
- 25) 안혜숙·주영애·김인옥(2002). 한국가정의 의례와 세시풍속. 서울: 도서출판 신정.
- 26) 윤원철(1990). 민속종교제도의 기능에 대한 고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논총, 90(8), 109-132.
- 27) 이길표(1982). 가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28) 이복규(2005). 개신교 추도식의 양상 및 전통기제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온지논총, 13, 308-327.
- 29) 이복규(2009). 한국 개신교 일생의례의 특성

- 과 세계관. 비교민속학, 39, 13-32.
- 30) 이승원(2006). 조상제사와 기독교 추도예배에 관한 연구. 계약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1) 이정우·김명나(1990).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05-124.
- 32) 이정우·김명나(1993).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행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 8, 23-50.
- 33) 이정우·김연화(1999). 도시주부의 가치지향성·제례의식·제례수행.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2), 33-50.
- 34) 임옥행(1981). 제사에 대한 부녀자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 20, 139-159.
- 35) 임중웅(2007). 신 장례·제례. 서울: 도서출판 신나라.
- 36) 장상욱(2004). 여대생 가정의 가정행사 수행 및 사회화와 행사의식 변화.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53-264.
- 37) 정복미·정혜옥·김은실(2004). 부산지역과 전남 여수지역 주부들의 제례준비 및 제례의식 조사연구. 한국조리학회지, 10(3), 135-154.
- 38) 정각(2007). 불교 상·제례를 통해 본 죽음과 사후인식. 보조사상, 28, 396-431.
- 39) 최우영(2003).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추모공원 설계기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아트퓨전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0) 통계청(2005). <http://www.kostat.go.kr>.
- 41) 통계청(2009). <http://survey.go.kr>.
- 42)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http://www.kihasa.re.kr>.
- 43) 한재숙·허성미·김정숙(1989). 제례에 대한 도시주부들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자원문제연구, 8, 143-153.
- 44) 허윤석(2002). 한국 천주교 상제례 문화의 토착화. 사목연구, 10, 148-182.
- 45) 홍현주(1986). 조상제사에 대한 가치관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6) Martina Deuchler(2009). 조선시대 양반사회에서 의례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 비교민속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1-10.

- 투 고 일 : 2011년 4월 1일
- 심 사 일 : 2011년 4월 7일
- 심사완료일 : 2011년 5월 11일